**삼상0103 Note**

**◆ 동명이인 /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,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**

민2507.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(피네하스:뱀의 입,세 이스라엘인의 이름,비느하스)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, 그가 회중 사이로부터 일어나서, 그의 손에 재벌린[로마흐:(던져진)창,철,끝,조그만 원형의 방패,던지는 창,작은 창]을 취하니라,